

제주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적응 실태와 사회통합 방향

유 소 영*

목 차

- I. 서론
-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 1. 논의의 배경
 - 2. 연구대상과 방법
- III. 제주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적응 실태
 - 1. 가족생활 적응
 - 2. 경제활동 참여
- IV. 결론

I. 서 론

전 세계의 사회와 문화 간 상호교류가 가속화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세계는 '국경 없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사는 남성의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증가는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수는 2006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원(제주대 사회교육전공 석사)

년 3만 4천여 명에서 2009년 110만 6천여 명으로 6년 사이에 약 36.6배 증가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의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가정적·사회적 문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제로 결혼하는 열 쌍 중에서 한 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인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¹⁾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의 2009년도 도내 외국인 주민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말 현재 외국인 총수는 6,941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562,355명의 1.2%에 해당된다. 2006년 4월 말 당시 도내 거주 외국인 총수는 2,645명인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39,360건이고, 2006년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3,576건의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이 27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에 따른 최근 3년의 이혼통계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이혼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8건에서 2006년 5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613건의 이혼에 있어 4.9%인 79건의 이혼으로 2002년 1.6건에 불과하던 이혼율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²⁾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결혼이민자³⁾ 및 그 가족들 사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그 동안 이루어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연구의 성과 및 선행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제주도라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이주를 선택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존재로 보고, 국제결혼을 통해 제주사회로 이주해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생활과 적응실태를 사회생활, 가족생활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셋째,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향후 이들이 제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여주시민신문, “다문화, 다인종 공동체를 만들자”, 2008년 1월 2일.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009),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3) ‘여성결혼이민자’ 개념은 2006년 4월 한국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외국 출신자로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주부’, ‘이주여성’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1. 논의의 배경

정보·통신·기술과 대량 운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해외의 이동이 국경을 쉽 없이 넘나들게 되었고, 그로 인한 사람의 이동도 증가하거나 시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2000년에는 1억 6천만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약 33%가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은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부터 선진국으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⁴⁾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 처음 생겨났다.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한국인 여성들이 미군이나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거나, 미국으로 귀환하는 남편을 따라 이주하였다.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하여 해외로 이주한 규모는 1970년 3,700건에서 서서히 증가하면서 1979년 6,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1,100건으로 감소하였다.⁵⁾

우리나라는 과거 70년대부터 농촌인구,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가 심각한 인구구성의 불균형 문제가 시작되어왔다. 특히 농촌 사회의 낡은 관습과 한계에 염증을 느낀 젊은 여성들은 이제 농촌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남녀 인구 균형이 무너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등지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을 들여오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경제적인 역동구조 속에서 노동력의 이동현상이 우리나라의 3D업종 기피현상과 맞물려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으로 연결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남아 선호사상은 성비불균형을 가져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총각들이 한국 신부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경제적·문화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노총각들은 결혼하기 더욱 힘들어졌고, 그들의 결혼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셋째, 결혼관의 변화로 독신여성들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상대자의 조건으로 경제적인 안정성을 우선으로 선호하다보니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남성들은 신부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넷째, 세계화와 개방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체류

4) 김정원 외(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복지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 27-38.

5) 통계청(2004), 「인구통계」.

자와의 교류가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체류자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력이 싼 외국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유입해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외로부터 유입되어온 근로자와 한국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인해 역시 국제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국가에서 국제결혼의 형태 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국제이주 및 국가 간 노동이주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세계가 드러나고 있고,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정부의 대책은 자연스럽게 주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가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및 관련 학자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동시에 2000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정부는 2005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범위로 확산되어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의 선행연구를 위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간 매우 활발히 진행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연구는 정책연구와 개인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연구들은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을 담은 보다 대규모적인 설문지를 조사하여, 포괄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지원을 위한 실태분석(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 심인선, 2008), 결혼중개업체의 실태조사(한건수 외, 2006)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주여성을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 전체가 겪고 있는 한국사회적응의 문제점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의 문제를 파악하여 언어문화적응을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언어와 문화 실태 조사를 통한 연구(왕한석 외, 2005), 담화인지언어학회에서 조사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응의 제 양상(왕한석, 2006)과 그 외에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언어습득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의 한국어 배우기와 한국 문화 적응 실태 등을 조사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연구로는 여성결혼이민자 증가현상이 먼저 포착된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을 다룬 연구(한건수, 2006; 박재규, 2007; 심인선, 2006; 김보라, 2008)와 국제결혼 이주현황과 가족문제를 다룬 연구(이혜경, 2005)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전라도 지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에 대한 연구(윤형숙, 2005), 경북지역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장흔성, 2008)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결혼의 전반적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상담사례 분석(최협 외, 2004; 서지명, 2008; 홍달아기, 2006)을 통하여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부부갈등 등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시행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제 체류기간, 거주지역, 지역사회의 지원프로그램 유무 및 참여정도 등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 구성 전망을 보면 <표 1>와 같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 현황은 <표 2>과 같다.

<표 1>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10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1997 ~2007	3,698,141	261,079	7.1	186,758	5.1	74,321	2.0

자료: 통계청(2007), 「인구동태(혼인)」

<표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추이(2001~2006)

(단위: 건)

연 도	총 혼인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2001	3,708	173	76	97
2002	3,574	190	105	85
2003	3,379	294	202	92
2004	3,325	421	268	153
2005	3,382	328	231	97
2006	3,576	379	277	102

자료: 통계청(2007)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7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6년과 대비하여 0.8% 감소하였으나, 전체 결혼에 있어서는 11.1%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결혼에 있어 10쌍 가운데 적어도 1쌍은 국제결혼임을 보여준다.

<표 2>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남편에 비해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도에 국제결혼은 421건 중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건수는 268이었고,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건수는 153이었다. 2005년에는 327건으로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 다시 379건으로 증가하였다.

제주도에는 외국인노동자가족이 소수이고 약간의 새터민가족이 있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⁶⁾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현황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쳐 총 979명 중 686명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의 7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중 국 (한국계포함)	베트남	일본	필리핀	러시아	미국	기타
계 (제주시+서귀포시)	979	448	207	81	99	5	18	121
제주시	686	295	160	56	56	5	15	99
여성 (제주시+서귀포시)	935	445	207	67	99	4	7	106
제주시	647	292	160	43	56	4	5	87
남성 (제주시+서귀포시)	44	3	0	14	-	1	11	15
제주시	39	3	-	13	-	1	10	1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재구성」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686명 중 중국(한국계 포함)출신이 2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이 160명, 필리핀 출신과 일본 출신은 56명으로 같았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여성결혼이민자가 647명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한 반면, 남성결혼이민자는 5.7%라는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6) 제주이주민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 현황

(단위: 명)

출신국가	계	읍거주	면거주	동거주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계	647	218	33	396
중국(한국계포함)	292	97	17	178
베트남	160	70	8	82
일본	43	11	1	31
필리핀	56	22	5	29
러시아	4	0	0	4
우즈베키스탄	6	1	0	5
기타	86	17	2	6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재구성」

<표 5>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 현황

(단위: 명)

출신국가	계	읍거주	면거주	동거주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소계	39	4	1	34
일본	13	-	-	13
미국	10	3	-	7
중국(한국계포함)	3	-	1	2
캐나다	8	-	-	8
독일	1	-	-	1
러시아	1	-	-	1
네팔	1	1	-	-
홍콩	0	-	-	-
기타	2	-	-	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재구성」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647명이고, 이 중 중국(한국계 포함) 여성결혼이민자가 292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를 보였으며, 베트남 160명, 필리핀 56명, 일본 43명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61.2%가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읍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면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약 6.6배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결혼이민자 39명 중 동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4명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지역은 1명, 읍 지역은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는 일본출신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8명, 미국 7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연구대상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즉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으로 제한한다.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출신국가는 중국(한국계포함), 베트남, 필리핀, 연령대는 20대 이상 30대 미만, 거주기간은 2~8년, 자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32명을 면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과 심층면접방법을 병행해 사용하였다. 국·내외 문헌자료 및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기본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작성은 '다문화',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과 관련된 연구 논문, 학위 논문, 단행본,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선행연구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조사도구를 만들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개인정보, 결혼 후 이주과정, 자녀관련, 가족 관련, 복지시설 서비스 관련, 취업관련 등의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제주이주민센터에서 통역, 행사참여 등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주시, 특히 한림읍과 애월읍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방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표집방식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⁷⁾

7) 눈덩이 표집은 소개의 소개를 받아 계속적으로 연구대상이 표본으로 선택되므로,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비슷한 표집방법이다. 첫 단계에서 단순무작위표집 방법이 적용되었기에, 확률적 표집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소개 받는 연구대상들이 같은 지역에 있거나, 친척, 같은 나이, 비슷한 심리적인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선택되므로,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모집단에 속하는 연구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며, 모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모집단에서 구성원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 적절한 표집방법으로, 연구자는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목표 모집단 구성원의 일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들에게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집단의 다른 성원들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눈덩이'는 연구자가 찾아낸 각 피실험자에게 다른 피실험자들을 제시하도록 하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경로

번호	이름	출신국가	거주기간	연령	배우자 직업	자녀 수	이주경로
1	A	중국	7	25	농사	2	결혼중개업체
2	B	중국	7	29	중장비기사	1	인터넷 채팅
3	C	중국	2	23	환경미화원	1	인터넷 채팅
4	D	중국	2	28	자동차정비사	1	친구소개
5	E	중국	3	22	회사원	1	친구소개
6	F	중국	3	24	개인택시	1	결혼중개업체
7	G	중국	5	24	농사	2	인터넷 채팅
8	H	중국	4	21	택배기사	1	친구소개
9	I	중국	3	27	농사	1	결혼중개업체
10	J	중국	5	25	컴퓨터 수리	2	국제결혼정보회사
11	K	중국	6	25	개인택시	2	인터넷 채팅
12	L	중국	4	26	농사	1	목사님소개
13	M	중국	6	28	농사	1	결혼중개업체
14	N	베트남	2	22	개인택시	1	펜팔
15	O	베트남	4	25	농사	1	국제결혼정보회사
16	P	베트남	3	22	일용직노동자	1	인터넷 채팅
17	Q	베트남	6	23	농사	2	국제결혼정보회사
18	R	베트남	6	24	개인택시	2	결혼중개업체
19	S	베트남	7	27	농사	2	인터넷 채팅
20	T	베트남	4	21	대리운전	1	목사님 소개
21	U	베트남	2	22	택배기사	1	친구소개
22	V	베트남	7	28	중장비기사	2	친구소개
23	W	베트남	5	29	일용직노동자	1	인터넷 채팅
24	X	필리핀	7	27	농사	2	결혼정보회사
25	Y	필리핀	2	23	농사	1	친구소개
26	Z	필리핀	5	28	회사원	2	결혼중개업체
27	AA	필리핀	4	21	대리운전	1	결혼중개업체
28	BB	필리핀	4	24	판매원	1	인터넷 채팅
29	CC	필리핀	5	25	개인택시	2	국제결혼정보회사
30	DD	필리핀	5	22	회사원	1	지인소개
31	EE	필리핀	6	26	농사	2	목사님소개
32	FF	필리핀	3	25	자동차정비사	1	결혼중개업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연령별 분포, 거주기간 및 자녀연령별 현황은 <표 7>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에 의하면, 제주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32

여 추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명 중 중국(한국계포함) 13명, 베트남 10명, 그리고 필리핀 9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8>에서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세 이상부터 23세 미만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23세 이상 26세 미만, 26세 이상 30세 미만은 중국(한국계포함)이 수치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4년 미만은 중국(한국계포함)이 가장 수치가 높았고, 4년 이상 6년 미만은 필리핀, 6년 이상 8년 미만 중국(한국계포함)과 베트남이 가장 높았다. 자녀 연령은 1세 이상 3세 미만은 베트남이 4명으로 가장 높았고, 3세 이상 5세 미만은 중국(한국계포함)이 7명, 5세 이상 7세 미만은 중국(한국계포함)과 베트남이 각각 3명이었다.

시부모님과과의 동거 현황을 보면 <표 9>와 같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국가는 베트남이 12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국가는 중국(한국계 포함)과 베트남이 8명 중 3명으로 많았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국가는 13명 중 5명으로 필리핀과 중국(한국계 포함)으로 파악되었다. 32명 중 13명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2명이 시부모님을, 8명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농업이 11명으로 34.4%를 차지하였으며, 개인택시가 5명으로 15.6%, 회사원 3명으로 9.4%, 자동차정비사, 중장비기사 각각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이주경로를 살펴보면 인터넷 채팅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이 각각 8명으로 25.0%를 차지하였으며, 친구를 통해서 6명으로 18.8%,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5명으로 15.6%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7>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연 령			계
	20~23	23~26	26~30	
중국(한국계포함)	2	6	5	13
베트남	4	3	3	10
필리핀	2	4	3	9

<표 8>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및 자녀연령

(단위: 명)

구 분	거주기간			자녀연령		
	2~4	4~6	6~8	1~3	3~5	5~7
중국(한국계포함)	5	4	4	7	5	4
베트남	3	3	4	5	5	4
필리핀	2	5	2	3	7	3
계	10	12	10	15	17	11

<표 9> 조사대상 결혼이민자의 시부모님과 동거 현황

(단위: 명)

구 분	시부모님	비율 (%)	시아버지	비율 (%)	시어머니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5	41.7	3	37.5	5	38.5	13
베트남	5	41.7	3	37.5	3	23.1	10
필리핀	2	16.7	2	25.0	5	38.5	9
계	12		8		13		32

Ⅲ. 제주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실태

1. 가족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을 정리하면 <표 10>와 같다.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전업주부이고, 그들 남편의 직업이 1차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으로 추산되며,⁸⁾ 이로 인해 가계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시부모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도 생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및 일상생활의 불만족 원인

(단위: 명)

구 분	의사소통	비율 (%)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	비율 (%)	경제적 곤란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6	46.2	3	33.3	4	40.0	13
베트남	3	23.1	3	33.3	4	40.0	10
필리핀	4	30.8	3	33.3	2	20.0	9
계	13		9		10		32

8) 제주특별자치도(2007), 자치행정과.

〈사례 #4〉

친정부모님이 한국에 오는 걸 많이 반대하셨어요.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가 되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낯설고, 대화도 안 통하고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 잘 적응을 못 하겠어요. 한국음식은 너무 맵고 냄새가 너무 싫어요. 애기 아빠랑 어머니랑은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국말 반, 영어 반 섞어서 써요. 남편은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전에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을 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옷 사주겠다고 해놓고 사주실 않아요. 내가 물어보면 매일 '나중에 사줄게' 하면서 자꾸 미뤄요. 그리고,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만 씻는다고, 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지 알고 일주일에 한번 씻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엌일을 하면 못 마땅하신지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럴 때마다 무서워서 가슴이 막 뛰어요. 어머니는 제가 싫은 가 봐요. 뭐라고 하면서 화내시면 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잘 안 돼요. 정말 답답해요. 애기아빠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면 어머니랑 애기랑 같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요. 몇 번 가출한 적이 있어요.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중국D씨, 28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2일)

〈사례 #20〉

남편은 밤에 대리운전을 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요. 생활비도 잘 안 갖다 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제가 한국음식을 잘 못하고 해서 구박을 많이 받아요. 대신 청소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지 항상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만 말하면 더 많이 화내시고, 그걸 남편한테 말해요. 그래서 한번 남편이랑 싸운 적도 있어요. 제 얘기를 남편이랑 시부모님께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짜증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나보고 혼자 다니면 무서워서 안 된다고 말하시는데, 아마 제가 밖에 나가서 집안 얘기를 할까봐 두려워서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해요. (베트남T씨, 21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17일)

〈사례 #32〉

남편은 자동차 정비사이고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남편을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사건건 시비거시고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세요. 동네 밖에 한번 갔다오면 혼내시고, 어디서 놀고 오는 거냐고 화내세요. 한번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말은 배운 적이 없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하시는 말 계속 듣고, TV 계속 보고해서 조금은 얘기할 줄 알아요. 지금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필리핀FF씨, 25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4일)

<표 11> 복지관 및 공공기관 이용 사유

(단위: 명)

구 분	교 육	비율 (%)	상 담	비율 (%)	이용하지 않음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4	44.4	6	35.3	3	50.0	13
베트남	3	33.3	5	29.4	2	33.3	10
필리핀	2	22.2	6	35.3	1	16.7	9
계	9		17		6		32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관 또는 이주민 센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사유는 출신국가 별로 교육이 44.4%로 중국(한국계포함)이 가장 많았으며, 상담이 중국(한국계포함)과 필리핀이 35.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사유가 상담을 위해, 그 다음으로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0>

애기아빠는 컴퓨터수리를 해요. 그런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요. 일주일에 4번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술 먹으면 저한테 막 욕하고 나가라고 해요. 술 먹은 다음 날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요. 여러 번 참다가 한번은 술을 먹고 나를 때려서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아는 분을 통해서 결혼가족지원센터에 갔어요. 센터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분에게 저의 상황 얘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센터에 있는 분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서 삼자대면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지금은 시어머니랑 남편이랑과의 사이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J씨, 25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3일)

<사례 #14>

남편은 개인택시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방에 있으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런 다음 남편을 데리고 나가요. 그럼 저는 혼자 있어요.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시어머니랑 저랑 같이 있는데, 물 아껴쓰지 않는다고 화내고, 청소 하면 깨끗이 하지 않는다고 소리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런 일 없었다고 어머니께 말해달라고 하면(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알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서는 안 해요. 그런 남편태도도 너무 싫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계속 참았어요. 낮에 시어머니가 청소하는데, 막 소리 치니까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있다가 센터로 갔어요. 센터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나눈 후 다시 집으로 갔어요. 센터에 있는 분이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잘 얘기해 줬어요. 지금도 집에 있으면 무섭기는 해요.(베트남N씨, 22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0일)

〈사례 #28〉

남편은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적어요. 한국말은 초급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시간도 없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한국말 다 까먹었어요. 간단한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해요. 남편이랑은 영어랑 한국말이랑 사전 찾아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버님이랑은 못해요. 너무 늙어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해요. 저번에 얘기가 아파서 저 혼자 얘기랑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간호사가 저를 무시하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했어요. 가서 3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얘기아빠한테 전화해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땐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고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어 교실을 다닐려고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이번에는 꾸준히 해서 중급까지 들을 거예요. 열심히 할려고요.(필리핀BB씨, 24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5일)

〈사례 #9〉

남편은 농사는 짓는데, 쉬는 날에 경마장에 가요. 가서 돈을 많이 잃는 거 같아요. 한 달 전 인가 경마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는지 술을 잔뜩 먹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러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돈 벌어 오라고 막 소리치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도저히 못 참아서 센터에 도움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시집 온 여자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참고 사는 것이 한국의 풍습이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 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하고도 못 만나게 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홍분하며...)

(중국I씨, 27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9일)

〈사례 #5〉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말 배우러 센터에 간다고 하면 싫어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뭐 할 거냐고 그냥 집에서 같이 지내다보면 저절로 한국말 배우게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말로만 그러시고 가르쳐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센터에 가면 집안에서 일어

난 일을 얘기할까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동네에도 잘 못 돌아다니게 하세요. 저는 센터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저는 애월에 사는데, 센터가 제주시 중심가 쪽에 있어서 거기까지 거리도 멀고, 차도 없고 해서 그냥 포기했어요.(중국E씨, 22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31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용사유는 상담으로 인한 이용이 32명 중 17명으로 53.1%, 교육으로 인한 이용은 9명으로 28.1%, 이용하지 않는다가 6명으로 18.8%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담의 주 내용은 <표 14>에서와 같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시부모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갈등의 이유는 가족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족 원인과 복지관 및 공공기관 이용 사유와 동일하였다. 그 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중 ‘공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접근성의 어려움, 가족들의 반대, 공공기관을 잘 알지 못해서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 제주도 내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주시 삼도동에 1개소, 서귀포시 동홍동에 1개소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제주이주민 센터)는 제주시 노형동에 1개소가 있다. 제주시에 2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월읍과 한림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센터와 사는 지역과의 접근성이 어렵고, 가족들의 반대가 도시에서 더 외곽으로 갈수록, 즉 시골지역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반대하는 사람은 시부모님이라고 나타났고, 시부모님 중 특히 집안 일을 가르치는 시어머님의 반대가 32명 중 22명으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날까봐서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래의 사례에서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활동 참여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희망취업직종을 보면 <표 12>과 같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말 이외에도 자기나라 언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관광 통역 및 번역과 관련된 직종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무보조를 희망하였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한국계포함)이 관광통역 및 번역 직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베트남이 사무보조, 중국(한국계포함)이 학원 강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희망 취업직종으로 보면, 관광 통역 및 번역이 40.6%로 가장 높았고, 사무 보조는 25.0%, 학원 강사는 21.9%를 차지하였다.

<표 12>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 취업직종

(단위: 명)

구 분	관광 통역 및 번역	비율 (%)	사무보조	비율 (%)	학원강사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8	47.1	1	12.5	4	57.1	13
베트남	4	23.5	5	62.5	1	14.3	10
필리핀	5	29.4	2	25.0	2	28.6	9
계	17		8		7		32

<사례 #12>

애기가 지금 2살이에요. 애기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면 일을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요. 한국말은 아직 서툴지만, 틈틈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우면 관광 관련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요즘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중국말 할 줄 아니까 통역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번역하려면 한국말을 많이 잘해야 할 거 같아서). 일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을 거 같고 우울증에도 안 걸릴 거 같아요.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중국인씨, 26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18일)

<사례 #23>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예요. 경제가 안 좋은지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일이 없는 날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리나 보조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한국말을 빨리 배워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아빠를 힘 안들게 돕고 싶어요. 생활위주의 한국말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자리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베트남W씨, 29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1일)

<사례 #30>

애기가 지금 3살인데, 다른 애들보다 한국말이 좀 늦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밥일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요. 계속 동네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동네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비밀로)이 있어도 잘 못해요. 소문날까봐 시어머니가 주의를 주세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필리핀DD씨, 22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7일)

<표 13> 경제활동참여 이유

(단위: 명)

구 분	가족생계유지	비율 (%)	생활비보충	비율 (%)	자녀교육비충당	비율 (%)	본국으로 송금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5	45.5	3	33.3	2	33.3	3	50.0	13
베트남	3	27.2	3	33.3	2	33.3	2	33.3	10
필리핀	3	27.2	3	33.3	2	33.3	1	16.7	9
계	11		9		6		6		32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언어 능력'이 웬만큼 갖추어지면 취업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생계 유지', '생활비보충', '자녀교육비 충당'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향후 취업을 하고 싶어하였으며, 이들이 현재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이거나 한국말이 서투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사례 #27>

결혼 전 필리핀에서는 취업경험이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 건물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금은 한국말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정말로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했을 때, 사장님이 일을 시키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곤 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혼자서 돈을 버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남편을 돕고 싶어요. (필리핀AA씨, 21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7월 14일)

〈사례 #21〉

저는 결혼 전에 식당에서 일했었어요.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식당일을 하다면 일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 같아요. 아직 제가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무서울 거 같아요. 한국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돈 관리는 시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시어머님께 용돈을 받아요. 이 용돈으로는 가끔 정말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일을 하고 싶어요.(베트남씨, 22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7월 30일)

〈사례 #6〉

결혼 전 본국에서 취업했던 경험은 없어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돈을 벌어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친정에 돈을 부치고 싶어요. 친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남편도 도와주고, 친정에도 가고 싶어요. (중국F씨, 24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13일)

<표 14>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구 분	이민자 교육	비율 (%)	취업정보	비율 (%)	경제적 지원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5	35.7	4	36.4	4	57.1	13
베트남	5	35.7	3	27.3	2	28.6	10
필리핀	4	28.6	4	36.4	1	14.3	9
계	14		11		7		32

<표 15>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단위: 명)

구 분	한국어 학습	비율 (%)	한국문화 이해	비율 (%)	생활정보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5	31.3	5	50.0	3	50.0	13
베트남	6	37.5	3	30.0	1	16.7	10
필리핀	5	31.3	2	20.0	2	33.3	9
계	16		10		6		32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이민자 교육 및 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사전에 한국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접하거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40.6%가 이민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34.4%는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등의 취업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였으며, 21.9%는 한국생활에 단시간 내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였다. 또한 초청의 폭넓은 경제적인 혜택과 지원을 요구하였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한국계포함)과 베트남이 35.7%로 이민자교육을 필요로 하였으며, 필리핀과 중국(한국계포함)이 36.4%로 취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5>는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그리고 생활정보 등을 사전에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입국 후 결혼과정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문화 이해, 생활정보 순으로 파악되었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37.5%로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였고, 중국(한국계 포함)이 50.0%로 각각 한국문화 이해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였다.

<사례 #8>

저는 한국에 오면 가게 하나 차리고 싶었어요. 가게하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너무 틀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포기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가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한국에 올 때 한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해서요. 남편은 택배운전기사인데, 트럭을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날까 봐 걱정이 되요. 남편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시부모님도 잘 해주시구요. 저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해요. 한국말은 조금 밖에 못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남편이랑은 손짓발짓 하면서 대화를 해요. 시부모님이랑은 남편이 중간에서 통역해 줘요. 낮에 남편이 없을 때는 정말 아무말도 안해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올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법적으로도 제한이 많아요. 국적이 없으니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해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배울려구요. 그 전에는 너무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저의 상황을 받아드리기 힘들었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한국에 적응해 가려구요. 그래도 다른 중국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남편이랑 시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거는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하하..) 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죠 뭐.(하하하...)(중국H씨, 21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6일)

<사례 #17>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남편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가씨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이해를 해줘요. 고맙죠. 한국에 온 후로는 베트남에 한번도 안 가봤어요. 가족이 보고 싶어요. 남편은 농사를 해요. 저도 같이 도와요. 처음에 농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한국말은 서툴지만 대중 의사 소통은 해요.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가 조금씩 한국말을 가르쳐 주세요. 농사일이 바빠서 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은 못 받아요. 나중에 우리 애기 들어가기 전에 한국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애기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 말도 해주면 좋겠어요. 한국오기 전에 '저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걸'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가 되면 김치랑 떡볶이랑 잡채 등 한국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베트남Q씨, 23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4일)

<사례 #29>

한국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난 후에 알았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남동생 2명이랑 같이 살아요. 남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국말은 아직 서툴러요. 지금 센터에서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배우다가 쉬고 여러 번 그래서 다시 기초반에 있어요.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하나씩 좋아요. 친구들이랑 있으면 시간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한국 음식이랑 가족관계는 괜찮아요. 가장 힘든 것은 한국말이에요. 빨리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1년 있다가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바쁜 시간 때에는 아줌마들이 막 짜증냈어요. 아마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깐 그런 거 같았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오니깐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필리핀CC씨, 25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11일)

<표 12>에서와 같이 이번 조사에서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32명 전원이었다. 직종은 3가지로 좁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중 희망하는 직종은 관광 통역 및 번역이 32명 중 17명으로 53.1%를 차지하였고, 사무보조는 8명으로 25.0%를, 학원 강사는 7명으로 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모두 취업을 원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경제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였다. 가계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일차적인 이유 외에 직종별 선택에 따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들 중 관광 통역 및 번역을 선택한 이유가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에 익숙하여 일이 편할 것 같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에도 '관광객으로 제주도에 오는 모국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아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라고 한 것이 단순히 모국인 뿐만 아니라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고, 외롭다는 것을 뜻하며, '속마음을 털어 놓을 때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만큼 가족 내에서도 고립감이 크고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보조와 학원강사 순으로 선택되었는데, 사무보조는 사무실에서 한국 사람들과 접하면서 한국말과 문화, 관습 등을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학원 강사는 한국말은 잘 하지 못해도 모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일이 쉬울 것 같다는 이유로 선택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이민자 모두 취업을 원하기는 하지만,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5〉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 빨리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차피 한국에서 살려고 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많이 편할 거 같아요.(베트남O씨, 25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3일)

〈사례 #3〉

저는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싶어요. 남편만 돈을 버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저는 가난이 너무 싫어요. 저는 중국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말 보다는 중국말을 잘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싶고. 특히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 다른 일보다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 힘들어요...(중국C씨, 23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7일)

제주도 양성평등정책과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5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253명으로 3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204명으로 28.9%, 100만원 미만이 17.3%로 나타났다.⁹⁾ 상당수의 배우자들의 직업이 1차 산업이나 단순노무에 종사 등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2009).

아니라, 가계를 돕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는 높으나, 언어 소통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구직에 장애를 받고, 설사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IV. 결 론

한국에 온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정착할 때 효과적인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 줄만한 지지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한국 땅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제주시에 있는 결혼이민자 32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주로 제주이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구체적인 심층면접 내용에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결혼이민자의 가족 불만족 원인, 공공기관 사용이유, 희망취업직종, 결혼이민자의 요구사항,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가족 혹은 일상생활의 불만족 원인에서 보면 의사소통과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경제적 곤란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기관 사용이유에서 보면, 상담, 교육, 이용안함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취업직종 면에서 보면 관광 통역 및 번역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보조 그리고 학원 강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요구사항을 보면, 이민자교육에 대한 필요가 절실하였다. 그 다음으로 취업과 연관된 정보,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고, 한국문화의 이해 및 생활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재 취업중인 결혼이민자는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결혼이민자도 향후 취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점들 중 미흡한 의사소통에서 오는 갈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 등은 제주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사회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힘쓰고,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취업 멘토링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제주도 내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한림읍과 애월읍을 중심으로 32가정을 면담하였으며, 이것은 제주도 전체를 일반화시킨다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이들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가 중국(한국계를 포함), 베트남, 필리핀이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국어로 면담을 하였으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들은 영어로만 구술하여 면담하였으므로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가족 및 사회 내 인권침해적인 폭력, 국적 취득의 어려움, 가계 생활의 빈곤함,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 같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른 지역에서의 정책과는 달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역과 국가 더불어 세계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려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제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취업과 연계 가능한 인적자원 프로그램 마련, 다문화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다문화가족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인적·물적 지원정책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좀 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행정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다문화가족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다문화 주부, 모국문화 강의 세계가 보여요”: 2009년 10월 1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181718245&code=950301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 권오희(2007). “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독교일보. “미국 이민의 역사”: 2008년 2월 16일.
<http://www.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lif&id=189818>
- 김갑성(2006). “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행정대학원.
- 김대수(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범수 외(2007).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보라(2008). “국제결혼이민 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선미·김영순(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적응관계 연구: 자아존중감, 정서안정성 및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옥(2005).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권 2호.
- 김정원 외(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복지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수(2000). “부부의사소통과 결혼생활만족”,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강의 논집』, vol.1,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현미 외(2008). 『생활세계의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사키 우찌다(2007).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신학대학원.
- 문용린 외(2008). 『이주가정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무지개청소년 센터.
- 박민정(2007). “사회과 교실의 다문화교육 수업모형 개발연구(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대한 시민교육적 접근)“, 석사학위 논문, 성신대학교 대학원.
- 박병섭(2008). 『다문화주의 철학』, 실크로드.

- 박영순 외(2008).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박은애(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규(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전북 지역 사례”, 『농촌경제』, 제29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찬영(2008).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인문교육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 서지명(2008). “경북지역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패와 정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조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107호.
- 송복희(200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교육 효과(익산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신경희(2008). “농촌의 결혼이민자가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심인선(2006).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심인선(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안연식 외(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 여주시민신문, “다문화, 다인종 공동체를 만들자”: 2008년 1월 2일.
<http://www.yjn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34>
- 염미경(2007).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선인.
- 염미경(2009). “2009년 다문화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사연수자료”, 제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오성배(2005). 『코시안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은순 외(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왕한석 외(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연구』, 국립국어원.
- 왕한석(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의 제 양상”,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 원희목(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향후대책』, 정책토론회.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8).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 윤형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8권 제 2호, 역사문화학회.
- 윤희원(2006).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이성순(2008). 『이주여성 이야기(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이야기)』, 형설라이프.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 이혜경(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 25.
- 임지현(2008). "문학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 연구 : 개념중심 수업 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미영 외(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 교육프로그램 연구)』, 글솟대.
- 장훈성(2008).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정기선 외(2007). 『경기도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영성(2008). "농촌 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전남 함평군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태 외(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한국언어치료학회.
- 정현영(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 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 대학원.
- 제갈종기(2007).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석사학위 논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제주의 소리, "그 허망한 하여가를 멈추기를 바란다" : 2006년 11월 05일.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3959>
- 조선일보. "코시안, 10년후 10만명 달할 듯", : 2003년 5월 4일.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0470202
- 조혜영(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경란(2009).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최재영(2007). "세바퀴 다문화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희망 프로젝트", 『교육제주』, 136호.

- 최충옥 외(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최협 외(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한건수 외(2006b).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건수(2006a).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 한라일보, “제주어 보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08년 12월 8일.
<http://www.hallailbo.co.kr/>
- 홍달아기 외(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한국생활과학회.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석사학위 논문,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범주(2008). “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박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 황윤주(2008). “결혼이민자여성 농촌지역 유입과 ‘적응’경험”,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Banks, James A. , 모경환 외 공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 Glesne Corrine, 안혜준 역(2008). 『제3판 질적 연구자 되기』, 아카데미프레스.
- Rosado, Caleb (1996). "Toward a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ph.D. in Soci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 Washington Post, “The Myth of the Melting pot. By William Booth”, 22 February, 1998.
- Welfare News, “엄마, 왜 내가 다문화야?”: 2009년 9월 21일.
http://www.welfarenews.net/news/news_view.html?bcode=20623

